

우리 칠기(漆器)가 독자적(獨自的)인 힘으로 처음 만들어 지기는 고신라(古新羅)로 보는 것이 타당(妥當)하지 않을까 싶다

나전칠기 (螺鈿漆器)

芮 庸 海

1.

우리 나라에서 나전칠기(螺鈿漆器)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중국(中國)의 기록(記錄)에는 칠기(漆器)가 이미 한대(漢代)에 있었다고 보이나 유물(遺物)의 발굴예(發掘例)가 보고(報告)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낙랑시대(樂浪時代) 고분(古墳)에서는 많은 칠기(漆器)가 발굴(發掘)되었다. 종류(種類)로는 안(案),반(盤),배(杯),함(函) 등속이 있다. 따라서 낙랑시대(樂浪時代)의 칠기(漆器)로 미루어 한 대(漢代)의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낙랑(樂浪)의 칠기(漆器)에는 흑칠(黑漆)과 주칠(朱漆)이 혼하고 그 위에 채칠(彩漆)로써 인물(人物), 금수(禽獸), 운문(韻文), 등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더러는 흑칠(黑漆) 위에 가는 문양(文樣)을 음각(陰刻)한 것도 볼 수 있고 하여 세련(洗鍊)된 기교(技巧)는 현대(現代)의 안목으로 보아도 놀랄만한 것이다.

반(盤)은 크거나 작거나 언저리에 도금(鍍金)한 복륜(覆輪)을 두르고, 배(杯)에는 도금(鍍金)한 귀 한쌍이 붙어있다. 안(案)은 장방형(長方形)도 있고 그리고 또 금구장식(金具裝飾)을 덧하여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다. 함(函)에도 크고 작은 것과 모난 것 둥근 것 하여 뚜껑에는 금동(金銅)으로 사엽식(四葉飾)을 박고 잎마다 하트 형(形)의 편평(扁平)한 구슬을 상감(象嵌)하여 그 밑에 짐승을 그려 위에서 비쳐 보이게 했고, 사이사이 공간(空間)은 유려(流麗)한 문양(文樣)을 음각(陰刻) 하기도 하고 칠서(漆書)하기도 했다. 지금 사람들이 그 흉내도 못 내리만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낙랑고분(樂浪古墳) 출토칠기(出土漆器)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 지기는 1931年 가을 평양교외(平壤郊外) 대동군(大同郡) 남관면(南串面) 남공리(南共里) 이른바 채협총(彩篋塚)에서 발굴(發掘)된 자그마한 칠기(漆器) 대바구니다.

대를 두 겹으로 엮어서 만든 이 칠기(漆器) 바구니는 뚜껑이 있어서 폭(幅) 일척삼촌(一尺三寸) 길이 육촌삼분(六寸三分), 뚜껑의 깊이 삼촌이분(三寸二分)으로서 둘레와 뚜껑의 가운데는 테두리를 하여 칠(漆)을 두겹게 올리고 흑칠(黑漆) 바탕에 색칠(色漆)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주(主)는 인물(人物)로서 거기에 만화문(蔓華文), 운룡문(雲龍文), 격자문(格子門) 등을 곁들였다. 색칠(色漆)은 흑칠(黑漆)을 바탕으로 하여 주(朱), 적(赤), 황(黃), 녹갈색(綠褐色) 등이며, 그림의 선(線)이나 색칠(色漆)의 조화(調和)는 자유분방(自由奔放)하고 표현(表現)이 약동(躍動)하여 박진(迫眞)의 묘(妙)를 보여 준다.

그림의 주요부분(主要部分)은 인물(人物)로서 어느 것은 앉아 있고, 또 어느 것은 애기하고 하여 모두 94명(名)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그려진 인물(人物)은 모두가 당시(當

時) 사람 입에 오르내리던 명군(名君), 군자(君子), 효자(孝子), 미녀(美女)들이다. 고분(古墳)의 형태(形態) 기타로 미루어 서기(西紀) 2세기말(二世紀末) 즉 지금으로부터 약(約) 2800年 전(前)의 것이니 육필(肉筆)로 된 그림으로는 가장 오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낙랑고분(樂浪古墳)들의 출토품(出土品)은 한(漢)나라 본토(本土)에서 제래(齊來)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절대적(絕對的)인 영향력(影響力) 아래 있었을 낙랑(樂浪)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겠으므로 이들을 두고 곧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칠기(漆器)가 독자적(獨自的)인 힘으로 처음 만들어지기는 고신라(古新羅)로 보는 것이 타당(妥當)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부장(副葬)되었던 칠기편(漆器片)의 발견예(發見例)가 흔한 까닭으로 이와같이 유추(類推)하여 보는 것이다.

2.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나오는 칠기(漆器)들은 오랜 세월(歲月)에 부식(腐蝕)되어 원형(原形)을 알아 볼만한 것이 드물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니 하나는 본심(本心)으로 된 이른바 본심칠기(本心漆器)이다. 이는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라(新羅)때나 지금이나 칠기(漆器)를 만드는 솜씨의 근본(根本)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심칠기(希心漆器)로는 이식총(履飾塚)에서 나온 양신배(兩身杯)가 있다. 길이 18리(厘) 정도(程度)의 장타원형(長橢圓型) 주배(酒盃)로서 겉은 흑칠(黑漆)이고 속은 주칠(朱漆)이다. 이는 낙랑고분(樂浪古墳)에서 발견(發見)된 배(杯)와 꼭 같으며, 이조(李朝)때에도 칠기주배(漆器酒盃)의 경우 겉은 흑칠(黑漆)을 하고 속은 주칠(朱漆)을 했다.

목심칠기(木心漆器)로는 완(碗), 고배(高杯), 합(盒) 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색칠(色漆)로써 연화문(蓮花文), 초화문(草花文), 연속문(連續文) 등을 그린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중에도 본심칠기(本心漆器)로서 주목(注目)할 만한 것으로는 호간총(壺杆塚)에서 출토(出土)한 칠가면(漆假面)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옅은 본심(本心)에다 흑칠(黑漆)을 하고, 눈 알로는 푸른빛 유리를 박았다. 눈 알 둘레에는 황금(黃金)테를 들렀다. 좌우(左右) 두 색채(色彩)는 많이 짙어 원형(原形)을 알아보기 힘들으나 상부륜곽(上部輪郭)에는 철(鐵) 사용(使用)하여 황금(黃金)의 열점(列點)으로 장식(裝飾)했다.

이상(以上)은 나대 출토품(羅代 出土品)에서 본 칠기(漆器)의 개관(概觀)이거니와 호간총(壺杆塚) 출토(出土)의 칠가면(漆假面)에다 유리로 눈을 박고 거기다 황금(黃金)테를 둘러 붙인 것은 나전(螺鈿)을 상감(象嵌)하게 되는 후세칠기(後世漆器)의 선편(先鞭)을 이룬 한 선예(先例)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칠전(漆典)이라는 직명(職名)이 보이고, 경덕왕(景德王)때에 식기방(飾器房)이라 고쳐 불렀다는 기록(記錄)이나 관원(官員)을 14四名이나 두었다는 사실(史實)로 미루어, 또는 당대(唐代) 나전칠기(螺鈿漆器)의 예(例)라든가 일본(日本) 내량조(奈良朝)의 나전칠기(螺鈿漆器) 솜씨 같은 것으로 짐작컨데 이미 상당(相當)한 정도(程度)의 것이, 있음을 알겠다.

3,

신라(新羅)에서 한걸음 고려(高麗)로 내려서며는 유품(遺品)도 있고, 또 단편적(斷片的)

이나마 기록(記錄)도 보인다.

오늘날 전세(傳世)된 것으로는 대장경(大藏經)을 넣어 두고자 만들어졌던 경함류(經函類)로서 국내(國內)에서는 보존(保存)된 것이 없으나 가까이 있는 일본(日本), 멀리서 화란(和蘭) 등지에 까지 류전보관(流轉保管)된 것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뛰어나기는 일본(日本) 명고옥(名古屋) 덕천미술관(德川美術館) 수장(收藏)의 흑칠국당초나전경함(黑漆菊唐草螺鈿經函)으로서 까만 흑칠(黑漆)바탕에 나전(螺鈿)으로 자잔한 국당초문(菊唐草文)을 전면(全面)에 올린 의장(意匠)은 지금의 감각(感覺)으로도 신선(新鮮)함을 느낄 수 있는 우품(優品)이다.

출토품(出土品) 가운데서는 덕수궁미술관(德壽宮美術館) 수장(收藏)의 흑칠당초문나전경함(黑漆唐草文螺鈿經函)으로서 포류수금문(浦柳水禽文)은 고려청동기(高麗靑銅器)은 입사문(銀入絲文)에서나 또는 청자상감문(靑磁象嵌文)에서도 흔히 보는 바로서 한아(閑雅)하고 정교(精巧)한 솜씨는 가위(可謂) 경탄(驚歎)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고려(高麗)는 귀족(貴族)의 힘이 컸으며, 또 귀족문화(貴族文化)가 번성(繁盛)하였던 시대(時代)다. 고려귀족(高麗貴族)들의 호화(豪華)로운 생활(生活)은 정교(精巧)하고 전아(典雅)한 수(數) 많은 조도품(調度品) 속에 둘러 싸여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현란(絢爛)했던 것이 나전칠기(螺鈿漆器)와 청자(靑磁)였을 것이다.

여대문헌(麗代文獻)에서 보건데 인종(仁宗) 원년고려(元年高麗)에 온 서궁(徐兢)은 「宣和奉使高麗圖經(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用漆作不甚工而螺鈿之工細密可貴』라 했고, 또

용칠작불심공이나전지공세밀가귀,

『騎兵所乘鞍韉極精巧螺鈿爲鞍』이라고 하여 당시(當時) 어떤 공예품(工藝品) 보다도 나기병소승안천극정교나전위안

전칠기(螺鈿漆器)가 눈에 띄었던 것을 알겠다.

이 밖에도 고려사 식화지 중상서조(高麗史 食貨志 中尙書條)에

화장(畫匠)

소목장(小木匠)

나전장(螺鈿匠)

칠장(漆匠)

마장(磨匠)등의 장명(匠名)이 보인다.

화장(畫匠)은 나전칠기(螺鈿漆器)의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겠고, 소목장(小木匠)은 기물(器物)의 바탕이 될 백골(栢櫓)을 만들었을 것이며, 나전장(螺鈿匠)은 나전(螺鈿)을 켜고 다스려서 상감(象嵌)을 했을 것이고, 마장(磨匠)은 끝으로 완성(完成)된 것을 윤택(潤澤)이 나도록 가는 구실을 맡았을 것이다.

동(同), 백관지제가도감각색항(百官志諸可都監各色項)에 「鈿函造成監(전함조성감)」이 보이고, 또 동 세가 원종(同 世家 元宗) 13년조(條)에는

『甲辰置戰艦兵糧都監 又置鈿函都監 以皇后欲盛藏經而求之』라 보여 전기(前記)

갑신치전함병량도감 우치전함도감 이황후육성장경이구지

흑당초문나전경함(黑唐草文螺鈿經函)과 같은 우품(優品)이 함조성감(函造成監)에서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할뿐더러 아울러 국가(國家)나 왕가(王家)에서 많은 나전칠기(螺鈿漆器)를 수요(需要)로 한 자취를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中國)의 경우 나전칠기(螺鈿漆器)는 당대(唐代) 이래(以來)로 발달(發達)되었던

기법(技法)이 송(宋)·원(元)으로 내려오면서 쇠퇴(衰退)해갔으나, 고려(高麗)에 있어서는 오히려 12世紀 무렵에 전성(全盛)을 이루었다. 더욱이 려대(麗代)에는 독자적(獨自)인 발전(發展)을 하여서 나전상감(螺鈿象嵌)의 발상(發祥) 사이에 서로 유기적(有機)인 상관관계(相關關係)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4,

이조(李朝)에 들어와서도 나전칠기(螺鈿漆器)의 기법(技法)은 여전(如前)히 계승(繼承)되었다. 이조(李朝) 나전칠기(螺鈿漆器)의 특징(特徵)은 고려(高麗)에 비(比)해 회화적(繪畫的)인 문양(文樣)이 성(盛)하여 그 표현(表現)이 자유(自由)롭고 서정(抒情)에 넘쳤다 할 것이다.

김원룡(金元龍)교수(教授)의 「이조시대의 공예(李朝時代의 工藝)」 중 나전칠기(螺鈿漆器)에 관한 것을 편의상(便誼上)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나전칠기(高麗螺鈿漆器)에서는 나패(羅牌)뿐이 아니라 홍(紅), 황색(黃色), 석(錫)의 착선(綫線)을 쓰고 있는데 이조칠기(李朝漆器)에서는 나전(螺鈿)뿐이며 복채(伏彩)의 착선(綫線)의 사용(使用)은 금지(禁止)되고 있다. 또 문양(文樣)에 있어서도 고려(高麗) 것은 청자(靑磁)에서 보는 따위의 작은 화문(花文)을 반복사용(反復使用)해 회화적(繪畫的)인 것 보다는 도안적(圖案的)인 성격(性格)을 가지고 있는데 이조(李朝) 것에서는 소단위문양(小單位文樣)보다도 대형문(大形文)을 사용(使用)한 회화적(繪畫的) 효과(效果)를 나타내는 방향(方向)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傾向)이 있다. 이조초기(李朝初期) 나전칠기(螺鈿漆器)의 한 예(例)를 보건데 목단당초(牧丹唐草)가 고려문양(高麗文樣)에서 출발(出發)하고 있으면서도 구도상(構圖上)의 「심메트리」가 깨뜨러지기 시작하고 이조적(李朝的)인 자연주의(自然主義)가 나타난 작품(作品)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線)이 굵고 자유(自由)로운 운동(運動)을 전개(展開)하고있는 것이 간취(看取)된다. 이러한 경향(傾向)은 후기(後期)에 가면서 더 발전(發展)하여 화초(花草), 산수(山水)등 독립(獨立)된 회화(繪畫)를 다루게 되는데 청화백자(靑畫白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그림이 공식형식화(公式形式化)해서 마침내는 초기도안(初期圖案)에서 보는 세련(洗鍊)과 동력(動力)이 없어지고 조제 남질품화(粗製 濫送品花)하고 있다 운운(云云).」

이상(以上)은 김교수(金教授)의 소론(所論)이거니와 그 종류(種類)를 들자면 문갑(文匣), 사방탁자(四方卓子), 반(盤), 연상(硯床), 함(函), 안장(鞍裝), 베틀모 등등 다양하였다.

이 밖에 나전장(螺鈿匠)들의 사회적(社會的)인 지위(地位)라든가 생산품(生產品)의 유통과정(流通過程) 등도 아울러 설명(說明)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생략(省略)하기로 하고 지금 인용(引用)할 수 있는 통계(統計)에 의한 생산공장(生産工場)과 생산능력(生産能力) 및 시설능력(施設能力)과 수출실적(輸出實績)은 다음과 같다.

즉 1960年 현재 전국(現在全國)의 나전칠기(螺鈿漆器) 생산공장(生産工場)(극히 소규모(小規模))은 46개소(個所)이며, 생산능력(生産能力)은 연간 1100000만개(萬個), 시설능력(施設能力)은 95萬個, 그리고 1955年 이래의 수출실적(輸出實績)은 다음과 같다.

- 55年 - 3萬弗
- 56年 - 20萬弗
- 57年 - 15萬8千弗

58年 - 17萬弗

59年 - 21萬弗

5,

나전칠기(螺鈿漆器)는 바탕이 되는 목기(木器)나 유기 도자기 표면(鑪器 陶磁器 表面)에 형질을 발라서 다음과 같은 공정(工程)을 거쳐 완성(完成)된다. 목기(木器)는 홍송(紅松), 회(檜), 전라도산(全羅道産) 행자목(杏子木)이 바탕이 되며, 유기(鑪器)나 도자기(陶磁器)를 쓰게 된 것은 근래(近來)의 일이다. 공정(工程)을 대체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17개공정(個工程)이 된다.

첫째는 「사포질.」

목기(木器)는 경우를 예(例)로 삼자면 소목(小木)이 만들어진 바탕인 백장(栢穢)을 해어피(海魚皮)나 사포(砂布)로 문지른다.

둘째는 「색칠(色漆)바르기.」

백장(栢穢)에다 돼지솔로 생칠(生漆)을 발라서 칠장(漆穢)에 넣어 하룻밤 즉 7시간(時間) 내지 10시간(時間)을 말린다.

이 공정(工程)에서 생칠(生漆)이 백장(栢穢)에 스며들어 백장(栢穢)이 단단해 질 뿐만 아니라 나무결이 메워져서 바탕이 고와 진다.

셋째가 「틈 메임」

틈밥, 밥풀, 생칠(生漆)을 섞어 나무를 이은 곳이나 틈이 난 곳을 메운다.

그 혼합(混合)의 비율(比率)은 다음과 같다.

생칠(生漆) 45%

틈밥 40%

밥풀 15%

네째 「베 바르기」

생칠(生漆)과 쌀풀을 섞어서 삼베나 무명 내광목또는 모시를 칠(漆)을 한 백골(栢槽)위에다 발라서 씌운다. 생칠(生漆)과 쌀풀의 비율(比率)은 다음과 같다.

생칠(生漆) 55%

쌀풀 45%

베 바르기는 칠주걱을 써서 한다.

다섯째 「고래 바르기」

고운 황토(黃土)를 작열(灼烈)하는 불에다 구어 낸 다음 끈 물에 띄워 고운가루를 얻어 황토(黃土)가루와 생칠(生漆)과 물을 배합(配合)해서 베 바르기를 한 위에다 바른다. 처음에는 베의 눈을 메우고 다음으로 아주 곱고 평평하게 바른다.

옛날에는 황토(黃土)가루를 쓰지 않고 뺨가루를 썼다. 그 만드는 법(法)은 황토(黃土)의 경우와 같았다. 중년(中年)에는 뺨가루 아닌 숯가루(木炭粉)를 쓴 일도 있었다.

고래 바르기는 행자목(杏子木)으로 된 칠주걱을 썼으며, 황토(黃土)가루, 생칠(生漆), 물의 배합율(配合率)은 다음과 같다.

황토(黃土)가루 45%

생칠(生漆) 50%

물 5%

여섯째 「숫돌갈기.」

고래 바르기를 마치면 물을 주면서 숫돌로 바닥을 갈아 고르고 평평하게 한다. 초벌을 갈고 고르고 평평하게 한다.

초벌을 갈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고래 바르기를 하여 처음에 바르지 못했던 바닥에 한번 더 손질을 해야한다.

일곱째 「자개부침.」 또는 「자개지짐.」

자개는 주(主)로 제주(濟州) 앞 바다에서 나는 전복껍질을 쓴다.

전복 껍질을 도안(圖案) 위에 대고 실뚝으로 오려 종이에 붙인다.

종이에 붙인 것을 황토분(黃土粉)을 발라 숫돌로 간다.

평평하게 된 다음에 아교칠을 하여 대인두로 지지 붙인다.

여덟째 「아교빼기」

아교빼기라고도 하고 풀빼기라고도 일컫는다.

자개붙임이 끝나고 그것이 완전(完全)히 마르면 자개 밖으로 뜯어난 아교(阿膠)를 닦아 내어야 한다. 물을 섭씨(攝氏) 90도내지 100도로 끓여 30초(秒)에서 40초(秒) 사이에 문질러 낸다.

아홉째 「생칠(生漆) 바르기」

자개를 붙인 데다 생칠(生漆)을 한번 덧발라 말린다.

자개가 더 단단하게 붙고 또 오래 가게 하기 위함이다.

열째 「고래 바르기.」

고래 바르기는 토분(土粉)바르기라고도 한다.

황토(黃土)를 물에다 풀어서 정제(精製)를 한 가루인 토분(土粉)과 생칠(生漆) 물을 혼합(混合)하여 자개를 붙인 바탕에다 두 차례 바른다. 토분(土粉)과 생칠(生漆)과 물의 비율(比率)은 각(各) 40대(對) 50대(對) 10이다.

열 한째 「숫돌갈기」

토분(土粉)을 바른 뒤에 숫돌로 물을 주어 가면서 골고루 부드럽게 갈아야 한다.

이 공정(工程)은 자개 모양이 잘 두들어져 보이고 바닥이 고르게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때 갈기를 잘못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갈면 자개가 닳아 없어지고 한 쪽이 기울게 갈면 바탕이 패이게 된다.

열 둘째 「중칠 바르기.」

토분(土粉)을 끼어 얹어 갈아 놓은 것을 중칠을 올려 칠장(漆臟)에 넣어 7시간(時間)에서 10시간 가까이 말린다. 대개 하룻밤을 재우면 된다.

열 세째 「숫으로 갈기.」

중칠(中漆)이 되어 마른 것을 숫가루로 가는 것이다.

자개 본새가 두들어지고 바닥이 곱디곱게 갈리도록 해서 높고 낮은 데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숫도 우리 나라 행자목(杏子木)을 특수(特殊)하게 열처리(熱處理)한 것을 쓴다.

가장 좋기는 一年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일본(日本) 부소산 산정(扶蘇山山頂)에서 구어진 숫을 으뜸으로 친다는 말도 있다.

열 네째 「상칠(上漆)바르기.」

상칠(上漆)은 정제(精製)한 칠(漆)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칠(漆)이다. 가장 좋은 칠(漆)이란 칠(漆)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른 7,8월에 베껴낸 칠(漆)을 정제(精製)한 것을 이른다.

상칠(上漆)로써 중칠(中漆)을 하여 솥으로 두세번 간다음에 그 위에다 상칠(上漆)을 발라서 마지막 칠(漆)을 하게 된다.

열 다섯째 「또다시 솥으로 갈기.」

상칠(上漆) 바른 데를 조그마한 칠(漆)굵기 조각(彫刻)칼로 자개 모양에 따라 자개 등위의 칠(漆)을 긁어 낸다음 솥으로 상칠(上漆)을 한 두께의 4분(分)의 1정피(程皮)를 갈아서 바닥을 곱게 한다.

열 여섯째 「초광내기.」

치분(齒粉)과 콩기름을 섞어서 솥에 적어 솥으로 갈아 놓은 바닥을 곱게 문지른다.

다음은 콩기름만을 솥에 적어 문지르면 더욱 맑고 고운 윤이 난다. 너무 한 곳만 문지르거나 많이 문지르면 그곳의 상칠(上漆)이 닳아서 중칠(中漆)이 나타나게 되어 이색(異色)지게 된다.

열 일곱째 「재광내기」 또는 「3광(光)내기」

이것은 초광내기와도 비슷하나 삼광내기는 마지막 광내기로서 생칠(生漆)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칠(漆)을 정하게 해서 광을 낸 위에다 솥으로 끌고루 문질러서 칠(漆) 묻은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程度)로 한다.

이것을 칠장(漆穢)에 넣어서 약 2, 3시간 말린 다음 다시 솥에 기름만 적은 것으로 문질러 짧게 거둬들여 치분(齒粉)을 발라 기름기를 빼낸 다음 솥만으로 곱게 닦아 비로서 완성(完成)이 된다.

완성(完成)이 된 것은 부드러운 종지로 포장(包裝)하여 간수한다.

(필자(筆者) · 중앙일보문화부장(中央日報文化部長))

석실(石室)

석재(石材)를 쌓아서 만든 방(房)을 의미(意味)한 것이 지만 주(主)로 분묘(墳墓)의 매장설비(埋葬設備)를 가리킬 때 쓰여진다.

석실(石室)에는 이종(二種)이 있는데, 먼저 사벽(四壁)을 만들고 유해수용후(遺骸收容後)에 상부(上部)를 폐쇄(閉塞)하는 구조(構造)의 것을 견혈식석실(堅穴式石室)이라고 하고, 삼방(三方)의 벽(壁)과 천정부(天井部)를 우선(優先)완성(完成)하고 최후(最後)에 일방벽(一方壁) 또는 그 벽(壁)에 설치식출입구(設置式出入口)를 폐쇄(閉塞)하는 구조(構造)의 것을 횡혈(橫穴)된 석실(石室)이라고, 한다.

그러나 석실(石室)의 규모(規模)가 적은 것은 그 내부(內部)에 직접유해(直接遺骸)를 수용(收容)하는 경우(境遇)가 있고 석관(石棺)과의 구별(區別)이 용이(容易)하지 않다.

견혈식석실(堅穴式石室)과 상식석관(箱式石棺)과의 구별(區別)은 측벽(側壁)에 석축(石築)한 부분(部分)의 유무(有無)로 분별(分別)하고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과 횡구식석관(橫口式石棺)의 구별(區別)은 개구부(開口部)의 전면(全面)의 구조(構造)와 폐쇄장치(閉鎖裝置)에 의(依)하여 판정(判定)되는 일이 많지만 어느 것이나 편의적(便宜的)인 것이다. 또한 석실(石室)을 구축(構築)하는 석재(石材)의 형상(形狀)에 따라서 편평(扁平)한 할석(割石)을 평면(平面)으로 쌓은 것을 할석소구(割石小口) 적석실(積石室)이라고 하고 각 면(各面)을 평면(平面)으로 가공(加工)한 절석(切石)을 쌓은 것을 절석적석실(切石積石室)이라고 한다.

더욱 화장묘(火葬墓)의 장골기(藏骨器)를 수용(收容)하기 위(爲)한 석조(石造)의 구축물(構築物)이나 경총(經塚)에 있어서 경통매납(經筒埋納)을 위(爲)한 설비(設備) 등(等)도 보통(普通) 석실(石室)이라고 부른다.